

4월국회 첫날부터 ‘으르렁’

靑, 장관 5인 임명장에 보수 2야 “국정 포기” 맹비난 국회 의사일정 합의 불발...추경·쟁점법안 등 험로 예고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첫날인 8일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후 후보자를 이날 임명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장관 임명은 국정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쟁용 발목잡기’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고유권한인 장관 임명권을 훼손하지 말라고 맞섰다.

이에 따라 지난날 인사청문 정국 이후 더욱 가팔라진 여야 대치 전선이 4월 국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며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 편성,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 등을 놓고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 4월 국회에 험로가 예상된다.

제1·2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대해 날을 세웠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 반대와 국민 여론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독선과 오만 불통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결사의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오늘 독불장군식으로 기어코 내 사람이 먼저라고 임명하면 저희로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으로 답한다면 청와대와 대통령의 불통, 일방통행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일일 것”이라며 “이제라도 대통령은 무능, 무책임의 상징이 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는 것은 제1야당”이라며 “다이상 대통령의 정당 인사권 행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장관 임명 강행이 국정포기 선언이라는 정치 공세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여야는 추경 편성을 놓고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강원지역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을 ‘미세먼지·경기 선제 대응’ 추경에 함께 넣어 처리할 것을 강조했고,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에 포함된 추경이 ‘총선용 선심성’

으로 변질할 수 있다며 추경안에 재해 관련 예산만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지난 1달 동안 국민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무엇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라”고 비판했으며 나 원내대표는 “재해 추경만 분리해서 제출한다면 재해 추경에 대해서는 조소피드로 심사해 이 부분에 대한 추경안은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당 황교안·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4월 국회 의사일정과 현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각 당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의사일정 협상 권한을 일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현미·유영민 장관 유임 靑, 후임 인선 신중모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당분간 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호 국토교통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만큼 청와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무난한 후임 인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검증 기준을 통과할 도덕성과 장관직을 수행할만한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청와대 내에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까지 겪은 만큼 신중을 기하려는 분위기가 일쑤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가 확인된 만큼 검증 작업도 전보다 더 엄격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두 장관이 다음 개각 때까지 유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선 두 세 달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경우에 따라 올 가을이나 다음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장관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보강된 뒤, 후임 인선이 어느정도 가닥이 잡히면 이개호 농림부 장관 등 다른 의원 겸직 장관 등과 함께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둘러싼 성매매 강요 사건에 대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동료 배우 윤지오 씨(흰색 상의)가 8일 국회 본청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원 등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찾은 윤지오 “장자연 사건 규명해달라”

여야 의원들 지원 약속

고(故) 장자연 씨를 둘러싼 성매매 강요 사건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8일 국회를 찾아 사건 해결을 위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윤 씨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바른미래당 김수민·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초청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윤씨를

보호하고 장자연 씨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약속했다.

국회 문화위원장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윤 씨의 진실을 향한 투쟁이 외롭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잘 지켜드리자는 취지로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윤 씨의 지난주 출판기념회가 석연찮은 이유로 하루 전 취소됐다. 뜻 있는 사람들과 시민의 힘으로 오는 일요일 국회에서 복권서트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남민수 의원은 “진상

규명이 외압 없이 이뤄지고 핵심 증인 윤 씨가 증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권미혁 의원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정춘숙 의원에 한목소리로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3명의 의원과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종걸·이학영·남민수·권미혁·정춘숙 의원, 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은 ‘윤지오와 함께 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어 윤 씨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가라운지

박용진 “광주 유치원 비리 적극 수사해야”

시의회서 기자회견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처음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을) 의원이 8일 광주를 찾아 유치원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교육청 감사에서 차명계좌, 세금 탈루, 리베이트 등 심각한 의혹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되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방관하고 있다”면서 “국세청 역시 조사는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좌 추적과 같은 권한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소극적 수사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유치원 관계자들은 민주당과 여러 관계를 맺고, 지역 정치인과의 직간접적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안다. 지역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 민주당 광주시당에 적지 않은 부담을 드리는 일이라는 것도 여러 경로를 통해 알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가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야지 표를 먼저 생각하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해철 피해보상금 대불제 도입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의원은 8일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분쟁조정 내용을 받아들였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먼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자의 지급 능력이 못 미치거나 피해 입중에 많



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소비자가 별도 기금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사업자에게 구상(求償)하도록 한 것이다.

전 의원은 “피해보상금 대불제 도입으로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서삼석, 영암 스마트팜 현장 애로 청취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8일 전남 영암 방울도마토 재배 스마트팜을 방문했다. 서 의원의 이번 현장 방문은 고령화,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민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서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 현황과 농가 경영현황 등을 청취하고, 스마트팜 농업인 등 참석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서 의원은 “농업현장을 찾아 국민의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으로 농업인과 청년들이 농업에 투자하고 생산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동철, 오늘 광산문예회관서 ‘주민과 대화’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9일 오전 10시 광산문화예술회관, 오후 2시 농협 광주지역본부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연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주민과의 대화에서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등 의정활동 보고와 함께 주민 애로사항을 듣고 향후 발전 방향과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군 공항 이전 대책과



교육·복지 문제, 농업과 농촌 분야에 이르는 주민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일방적인 홍보 자리가 아닌 현안과제를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게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 삼계면 죽림리 1536㎡ 백일홍·꾸지뽕나무 200여주있음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신안 자연면 함우리 해수욕장 접 1654㎡ 별장 등 적함 분할가능 평당65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금매(주택) - 광산구 도천동 주택(방2) 대지 109㎡ 7천만원
-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아울렛 중 2층 전유 38㎡ 은행1억 매도4천
- 영암 삼호읍 용당리 공업지역 6019㎡ 은행 2억3천 매도 4억2천
- 운암동 대형아파트 지하 205㎡ 사무실 등 다용도 교환가능 1억8천
- 영광 영산면 신성리 땅 3088㎡ 주택 95㎡ 유실수 100여그루식재 2억
- 서구 아파트단지 반지하노래방 265㎡ 룻7 교환가능 임대중임 4억7천
- 강진 성전면 월출산 밀 4차선 접 4630㎡ 대형 저수지 인근 요양시설 적함 5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함 3억4천

상가건물

- 영광 영산면 바닷가 땅 2191㎡ 팬션 건물 2층 380㎡ 수영장, 매도 3억7천
- 충장로 4기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동구 지산동 땅 4732㎡ 건평 652㎡ 식당적함 18억
- 서석동 4층상가 조대 앞 땅 405㎡ 건평 919㎡ 보증금 6천 월 280 임대 중 12억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나주 남평읍 우산리 6111㎡ 지구단위 해서 아파트 적함 222억
- 정릉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 등 적함 원룸부지와 교환가능 4억7천
- 북구 용두동 6차선접 4899㎡ 물류창고 등 다용도 적함 45억
- 순천 낙안민속마을 저수지 옆 팬션 대지 2180㎡ 팬션3동 372㎡ 8억
- 나주 금천면 국도 접 주거지·대지·자연녹지 25714㎡ 은행 12억 매도 24억
- 북구 북동 금남로 57기 대로접 중심상업지 364㎡ 사옥 등 적함 1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여수 땅, 급매

- 여수시 봉강동, 대지 431평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
- 대출-20억5천만원
- 시세/감평가-약 40억
- 모든업종 개발가능
- 분할매매 가능
- 매매 - 상담후 결정

주인직매. 010-3627-8282

영광군 공고 제2019-271호

영광 해수온천랜드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주민열람공고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일원의 '영광 해수온천랜드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9일
영 광 군 수

- 1 영광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다음
- 2 영광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 3 사업 명 : 영광 해수온천랜드 리조트 조성사업
- 4 시행 자 : 영광군수(문화관광과)
- 5 열람기간 : 2019. 4. 9. ~ 4. 23.(14일간)
- 6 열람장소 : 영광군청 문화관광과
- 7 관계도면 및 세부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주민의견 제출서에 기재하여 영광군청 문화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기타 문의처 : 영광군청 문화관광과 ☎061-350-5758